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1호 【루계 제24819호】 주체104(2015)년 2월 10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과 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우수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행훈련을 극악한 정황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하여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이 나라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와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2014년도 건설정형총화를 위한 군정간부회의 참가자들, 중요대상건설에 이바지한 인민군대안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여서도 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떼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꼼메르싼뜨》, 《네자비씨마야 가제따》, 《아르구멘띠 이 팍띠》,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엔떼웨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마야크방송, 스뿌뜨니크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렌따. 루, 가제따. 루, 웨스찌. 루, 드니. 루, 뽈리뜨. 루, 뉴스루. 콤, 꼬레스뽄젠뜨, 에르베까, 인터네트신문 《브즈글랴드. 루》, 인터네트TV 《미르 24》, 네팔신문 《머저두르》,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슌》, 싱가포르TV《아시아소식통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월 23일과 2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을 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의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추격기들과 폭격기들의 훈련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께서는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근위부대 전투비행사들을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 교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을 실전에 접근시켜 진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녀성비행사들이 영웅조선의 효녀들이라고 치하하시였다.

로씨야의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에호 모스크비방송, 스뿌뜨니크방송, 인터네트신문 《브즈글랴드. 루》,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6호 주체104(2015)년 1월 21일

김득삼, 박경규동지들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김득삼, 박경규동지들에게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사설

일군들은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우리 일군들이 분발하고 또 분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올해전투의 성과여부는 중요하게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당의 핵심골간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것만큼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양되고 총진군대오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지난해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투쟁성과는 우리 일군들에게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우리 나라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고 이런저런 조건타발을 하던 패배주의자들에게 사상적타격을 주고 당정책은 몸이 열두쪼각이 나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서라도, 바다물을 다 퍼내서라도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것이 그들의 결사의 의지였다. 이런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현시기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사상적각오와 립장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지금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매우 방대하며 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 우리 당은 올해전투에서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역할을 수행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당정책의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고 당의 권위가 철저히 옹호되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이 더 세차게 분출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당앞에 검증받는다는 자각을 안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녀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 잘되지 않는데 대하여 안타까와하지 않고 책임을 느낄줄 모르는것은 일군의 자세가 아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죽으나사나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려는 투철한 사상적각오, 자기 단위를 당과 국가앞에 떳떳이 내세우려는 비상한 결심, 바로 이것이 현시기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관점이며 립장이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내세워준 당과 수령, 인민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자기가 맡고있는 초소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구이며 자기 단위가 일떠서야 온 나라에 혁신의 불길이 타오를수 있고 당정책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체질화하고 맡겨진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한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왕성한 일욕심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제때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일군들이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은 현시기 당에서 강조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의 참뜻을 깊이 새기고 실천투쟁속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올해농사에 필요한 물을 100% 확보하자는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물확보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많은 알곡증수예비를 찾아낸 재령군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불타는 각오를 가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이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 애민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진정한 동지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계주봉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의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조국을 떠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겠다는 결사의 투신력을 지녀야 한다. 당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도 놓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한가지라도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특전과 특혜를 바라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다. 인민군대는 생각하는것부터가 남다르고 투쟁기풍과 일본새도 특출하다. 모든 사업을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작전하고 설계하며 무슨 일이나 당의 의도에 맞게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는것이 인민군대의 기질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사고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의 불을 지펴올려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는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볼수 없고 패배주의의 한숨소리밖에 나올것이 없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대중과 호흡을 함께 하며 그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겉모양은 수수해도 심장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 말보다도 이신작칙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일자리를 푹푹 내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는 조건타발과 우는소리, 눈치놀음과 무책임성, 오분열도식과 남에 대한 의존심이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오늘의 총공격전이 우리 일군들의 경직된 사고관점과 보신주의적인 사업기풍,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타파하는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면 높은 실력을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실력의 높이이자 실적의 높이이다. 실적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각오를 가진 일군이라면 마땅히 실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요한 혁명임무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려는 당의 뜻을 받들어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있는 오늘날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실력을 부단히 높여 최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기발을 들고나가야 한다.

아는것이 많고 정서가 풍부할수록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고 사업을 활력있게 창발적으로 할수 있으며 인간적으로도 고상한 품성을 지닐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일반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일군들부터가 실력가, 박식가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여 대중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922건설돌격대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922건설돌격대원들의 궐기모임이 9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임장소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세포등판을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키자!》,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922건설돌격대원들, 세포군안의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곽범기동지의 보고에 이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중앙현장지휘부 부책임자 리경식, 인민보안부려단 초급청년동맹위원장 김충성, 자강도려단 만포시대대 대대장 김기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나라의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이며 922건설돌격대원들을 보다 큰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포지구에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을 다그칠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으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922건설돌격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남들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수만정보의 면적에 풀판을 조성하고 많은 건설과제를 해제끼였으며 지난해에는 새로 조성한 수천정보의 인공풀판에서 먹이풀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로건설과 방풍림조성을 힘있게 내밀고 살림집과 집짐승우리, 공공건물을 건설함으로써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세포지구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안아오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성과가 크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더 방대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한 투쟁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지휘관들,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세포전역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고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귀중한 땅을 한치도 내버려두지 말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과 한줌의 흙, 한포기의 풀도 가슴에 품어안고 후더운 심장으로 가꾸어가는 애국의 마음으로 세포등판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풍요한 대지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세포지구의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에 소석회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여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철 바람이 세게 부는 세포지구에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는것과 함께 해발높이가 각이하고 지형지세가 복잡하며 기후의 차이가 심한 조건에 맞게 오리새와 자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좋은 품종의 먹이작물배치를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잘하고 그 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여 생산을 늘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축산학연구소와 축산물가공기지, 집짐승우리 등 대상건설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여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답게 훌륭히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지운영과 생산활성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축산기지건설이 끝나면 인차 은을 낼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적일본새를 지니고 총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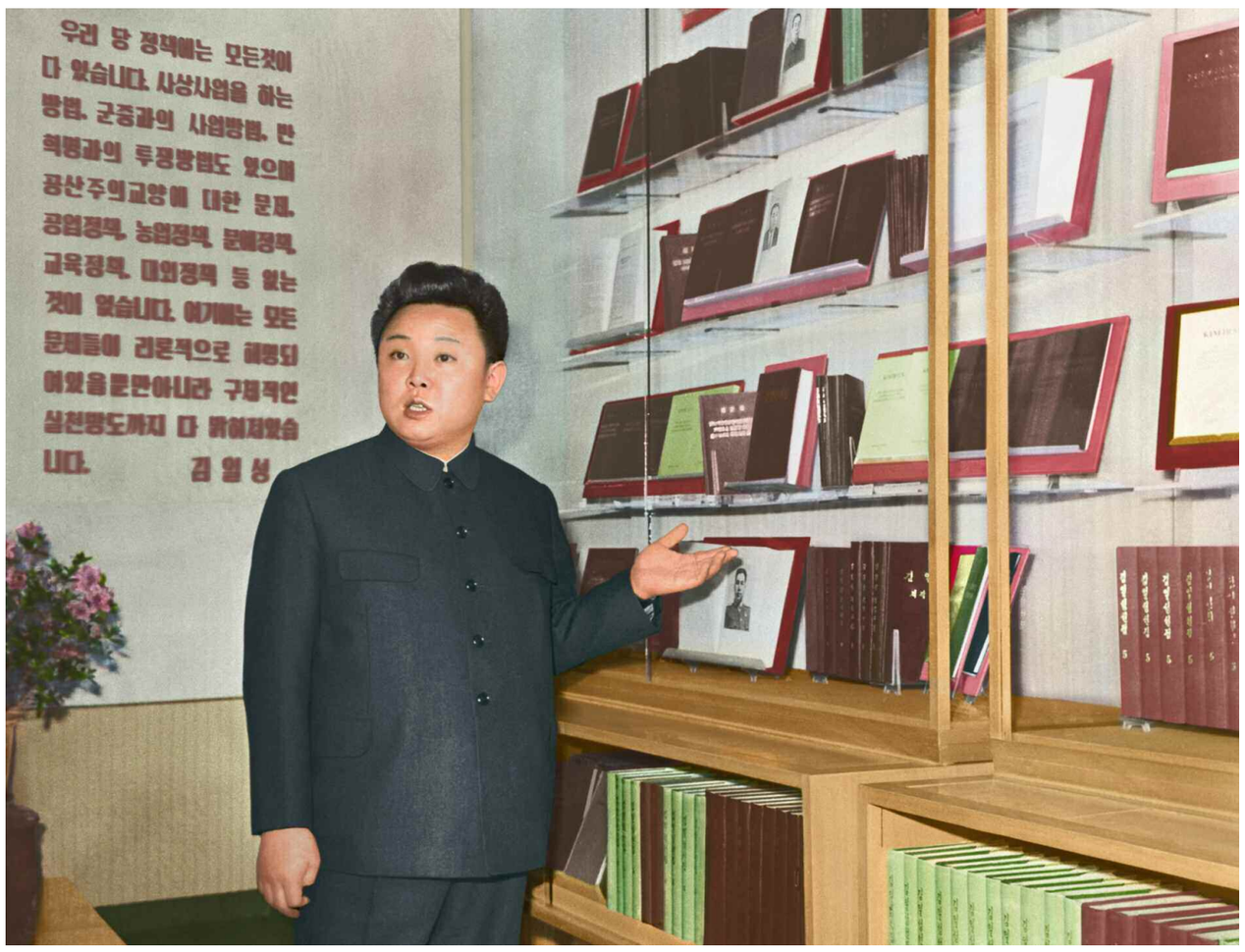
과업은 방대하고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수 있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제기일에 무조건 점령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는 돌격대원들이 있는 한 세포지구에는 세계적인 대규모축산기지가 반드시 일떠설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사상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라



↑ **김일성**주의연구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4월

←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3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5월

새로 개건확장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10월

향하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6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3월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의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금수골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3월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1월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우리 조국땅에 경사로운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혁명의 성지가 자리잡은 백두산지구에는 서리꽃이 황홀한 설경의 세계를 펼치고있으며 온 나라 곳곳에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비롯한 향기그윽한 꽃송이들이 피여나고있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는 2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더더욱 불타오른다.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추억과 장군님의 비범한 위인상에 대한 탄복, 그이께서 쌓으신 걸출한 업적에 대한 칭송으로 더욱 뜨거운 2월 천만군민은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우리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와 승리의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장군님과 같이 그처럼 엄혹하고 간고한 시련속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항일대전의 그날 눈보라치는 백두산 밀영의 귀틀집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간난신고를 겪으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로 만드실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시였다.

그 맹세, 그 의지를 심장에 고이 간직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만대에 빛내이며 이 땅우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무릉도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전선길, 공장길과 농촌길로 우리 장군님 이어가신 헌신의 낮과 밤,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였던가.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필생의 의지를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아 피력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서 하신 엄숙한 선언,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이것은 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이렇듯 혁명가로서 자신의 삶과 투쟁의 궤도를 조국과 하나로 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숭고한 사명감으로 온 넋을 불태우시며 안고계신 조국, 그것은 곧 사랑하는 인민이였으며 후손만대의 행복이였다. 바로 이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더 좋은 래일을 향하여 혁명생애의 나날들을 완강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헌신으로 수놓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피를 물고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에 견결히 맞서 총대로 열어나가신 백두령장의 선군의 길,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그 존엄과 위용을 끝없이 떨쳐나가는 성스러운 애국의 길이였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우리 혁명이 간고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야 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철석의 의지, 불굴의 신념으로 강성국가건설의 크나큰 목표를 내세우시고 부강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시였다.

나는 빨찌산의 아들입니다,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장애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우리는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조선혁명가들의 기질을 이어 두려움없이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것입니다라고 선언하시며 선군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백두의 선군령장께서 넘고넘으신 험한 철령과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최전연 판문점의 새벽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은 불철주야로 이어진 선군장정의 만단사연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걸음걸음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 길이 선군조선의 광명한 미래와 잇닿아있기에 그이께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줄기차게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이어가시였다.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

그것은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다.

력사는 아직 우리 장군님과 같이 수십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을 강행군실록으로 수놓으시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비약의 한길로 이끈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천리방선초소는 물론 련합기업소로부터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과 농촌, 목장, 학교, 상점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문화,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한해에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인민군군인들이 선군조선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대고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생산활성화의 방향과 방도를 명철하게 가르쳐주신 그이이시였다.

성강과 황철을 비롯한 야금기지들과 룡성과 락원을 비롯한 기계공업기지들,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 남흥을 비롯한 경공업, 화학공업기지들, 동봉과 신암, 미곡 등 농업생산단위들과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수놓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 천만군민은 그이만 계시면 강성부흥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진리를 심장마다에 깊이 새기였다.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삼복철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는 잠시라도 쉬시였으면 하는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좀 흘리는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이런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나의 병사들과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강행군을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백날을 쉬는것보다 더 좋다!

나날이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보면 혁명할 각오가 더욱 불타오른다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이런 강행군길을 계속 웃으면서 걷겠다고 하시며 끊임없이 바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로고와 심혈을 떼여놓고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오늘에 대하여 어찌 말할수 있겠는가.

그이의 령도는 그대로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이 되고 투쟁과 전진의 원동력으로 되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을 뵈올 때마다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희망찬 래일에 대한 끝없는 환희로 부풀었고 온 나라에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쳤으며 기적과 비약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번졌다.

정녕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이 나라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삼천리를 굽어보는 백두산의 모습그대로였다.

백두의 기상으로 이 땅에 락원을 펼쳐주시고 조선을 누리에 떨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태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우리 조국강산에 태양은 따사롭게 비친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사상과 령도, 풍모를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보살펴주고 빛내여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따라 우리의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솟구치고 강성국가건설의 보다 밝은 미래가 마중오고있다.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며 그 길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영원한 태양찬가로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강철남

끝없이 이어진 전설적강행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렬차에서 숨직하신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휴식일과 명절날이면 가족, 친척들과 함께 보람찬 삶의 희열을 한껏 느끼며 훌륭하게 꾸려진 극장과 공원, 유희장과 동물원 등 곳곳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군 한다.

인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조건을 보장받으며 누구나가 휴식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하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에 진정 휴식일이 있었던가. 명절날과 휴식일 지어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탄생일에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차창으로 흘러가는 조국의 산과 들, 인민의 밝은 모습에서 기쁨과 락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하루의 휴식도 없이 애국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하많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언제인가 수백리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뜩새벽에야 평양에 도착하시였을 때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먼길에 피곤하시겠는데 좀 쉬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일군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눅잦혀주시려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수백리 먼길을 달려오시고도 자그마한 내색도 없이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웃음지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한 일군들을 정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충분히 쉬였다고 하시면서 나에게는 휴식하는 방법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책이나 문건을 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에 나가 인민들을 만나보는것이라고 이야기하시였다.

고도의 정신집중을 요구하는 책과 문건을 보는 일이며 현지에 나가 인민들속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처리하여야 하는 현지지도를 휴식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

휴식이라는 말이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처럼 고도의 긴장을 동반하는 집무를 휴식으로 여겨온 위인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었던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당 및 국가수반들치고 정기적인 휴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 로고를 바치시면서도 언제 한번 휴식일을 정해놓고 쉬신적이 없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시여 그이의 건강을 보장할 여러가지 사려깊은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휴식만은 보장해드릴수 없었다.

그렇다.

인간의 보통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초인간적인 정력과 강의한 의지력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신 그 무수한 날과 달들은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쌓고 인민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위대한 애국헌신의 나날이였다.

그 나날에는 선군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오성산과 철령, 판문점과 초도, 1211고지 등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들에 대한 현지시찰도 있었고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모진 고난과 시련의 앞장에서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신 절세위인의 눈물겨운 강행군길도 있었다.

진정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절절히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뒤에 남기시고 인민행렬차에 오르신것 아니랴.

한평생 뜨거운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채히성

사색과 활동의 중심은 언제나 인민

2월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더 절절히 끓어번진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였으며 그 길에는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엮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도 인민이고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도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필생의 목표로, 숭고한 리념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악산유원지를 현지지도하실때의 일이다.

룡악산의 정점인 대봉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웅장화려한 평양의 장쾌한 모습과 날로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축도인양 거창하게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숲을 이룬 공장들, 끝없이 펼쳐진 풍요한 협동벌을 오래도록 부감하시였다.

아름다운 자연미에 조화를 이루며 새롭게 건설된 룡악산유원지의 모습도 볼수록 장관이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유원지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룡악산유원지에서 문화휴식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인민의 훌륭한 유원지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모든 문화휴식시설들을 룡악산의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게 건설하였다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을 거듭 치하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우리 장군님의 기쁨!

여기에는 유원지를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비껴있었다.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령도자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광복지구상업중심, 하나음악정보쎈터, 강계돼지공장, 중앙동물원…

력사의 갈피를 번져보면 세상에는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마음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두시고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시는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신 인민의 어버이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이 있어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게 되였을뿐아니라 문명한 물질문화생활도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되였다.

전광남

숭고한 인민사랑은 영원합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이 다가올수록 이민위천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렷이 안겨온다. 인민의 행복에서 최대의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에 대한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은 우리 공장의 구내길과 기대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내가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뵈온것은 주체100(2011)년 4월 20일이였다.

함경북도에서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종합적인 식료품생산기지를 새로 꾸려놓았다고 하기에 돌아보자고 왔다고 하시며 공장안으로 걸음을 옮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 생산공정들과 하나하나의 식료품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였다.

종합조종실에 들리시여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사탕작업반과 과자작업반에 들리시여서는 기대에서 쏟아져나오는 사탕과 강냉이과자의 색갈과 질을 하나하나 가늠해보시며 맛이 좋을것 같다고, 색갈이 보기 좋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나는 우리 장군님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지 온몸으로 절감하며 그이를 다른 작업반에로 안내해드렸다.

청진시안의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식료공장들의 식료품전시회에서 1등을 한 강냉이빵을 보시면서도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시간이 가는것도 잊으신듯 제품견본실까지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오늘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돌아보니 대단히 만족하다고, 공장에서 농토산물과 산과일, 산나물을 비롯한 지방원료를 가지고 전국에 자랑할만한 식료가공품을 생산하고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 1등을 한 우리 공장예술소조원들의 공연도 보아주시며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룬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분한 치하를 거듭 받아안을수록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노래를 부르는 나와 우리 공장예술소조원들의 두볼로는 격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우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바란다는 믿음의 당부를 남기시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였다.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지배인 한룡용

인민의 호평받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드높은 열의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너무도 평범한 날에 너무도 꿈만 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그날의 그 영광을 오늘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대표하는 질좋은 제품, 도, 시, 군을 대표하는 인민소비품들이 풍족하게 쏟아져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이제는 공장이름만 들어도 친근감이 느껴지고 이 공장제품이라면 어느것이나 다 맛좋고 영양가가 높아 더욱 매력있다고 누구나 이야기하고있다.

인민의 평가이자 제품의 질이고 그 단위를 상징하는 징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공장 현지지도소식을 전해들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은 물론 수도시민들모두가 자신들이 받아안은 영광처럼 기뻐했다. 체육인들을 위한 건강음료뿐아니라 갖가지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쨍쨍 생산하여 인민들이 너도나도 《금컵》이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속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단위로 당당히 올라섰다고.

《그 어느 작업현장에 들리셨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제일먼저 물어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같은 그 미소를 정녕 잊을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책임일군인 리정호동무의 말속에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자기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그이께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올리고싶은 이곳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진정 꿈만 같은 사연을 전하는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현장 1층 음료작업반에서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탄산음료들과 에스키모생산공정을 보시면서도 물보장과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가부터 물어주시고 2층 빵작업반의 포장기앞에서 쵸콜레트단설기며 강냉이단졸임소빵, 생과자생산공정을 보시면서도 위생환경보장이 중요하다고, 위생환경을 잘 지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인민들에게 차례질 식료품의 질에 대하여 마음쓰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3층에 있는 현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거기서는 새우튀기포장작업이 한창이였다.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이윽토록 보아주신 원수님께서는 상표도안을 자체로 잘했다고 하시며 공장의 평범한 상표도안가의 재능과 열정을 대견히 여겨주시였다. 기대마다에서 여러가지 식료품이 쏟아지고있는것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적은 로력과 크지 않은 생산면적을 가지고 많은 량의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해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신 원수님,

3층과 4층에 있는 현장까지 빠짐없이 돌아보시며 갖가지 고급당과류들과 빵류, 떡류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같은 식료가공기지들을 수많이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자랑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일군들은 크나큰 행복과 영광으로 가슴설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식 및 습식한증칸이 달린 목욕탕과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물의 옥상에 꾸린 남새온실에서 우줄우줄 자라는 남새들과 남방과일도 기쁨속에 돌아보시며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늘 자랑한다는데 공장에 대한 자랑은 그대로 공장애로 이어지며 그것은 곧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낳게 된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 새기신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은 오로지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기울이신 위대한 헌신의 고귀한 순간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공장지배인 전옥순동무만이 아닌 공장 전체 종업원들이 영광의 그날에 또다시 심장으로 절감한 우리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이였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속에 공장이 여기 청춘거리에 현대적으로 일떠선것은 불과 4년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직은 첫시작에 불과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평가하여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주도록 하시고 그 어느해인가 몸소 체육인들을 위한 건강음료견본도 내려보내주시여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한 건강음료를 비롯한 식료가공품들을 몸소 보아주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오늘은 공장에 찾아오시여 그 모든 공로를 자기들에게 안겨주시며 당정책관철을 위해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경영활동과 기업관리를 잘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니 혁명전사들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영광의 그날에 이들은 또다시 베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도 인민군대의 식료공장들처럼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전변시키자고 크나큰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후 온 공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공장에서는 우리 체육인들의 영양관리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경영전략이 확고히 세워졌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도 펼쳐졌다.

뜻깊은 그날처럼 공장은 만부하, 만가동의 동음을 기세차게 울려가고있다. 최정순, 문영실동무를 비롯한 빵작업반, 과자작업반원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더없는 긍지를 안고 이들은 지진소빵, 증기빵, 딸기단졸임소빵, 바삭과자, 파맛과자 등 벌써 여러 품종의 새 제품을 개발한데 이어 새로 개발된 식료품을 하루빨리 대량생산하여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새우사탕, 강냉이단묵 등 새 품종 사탕들의 시제품을 내놓아 인민들의 호평을 받은 사탕작업반원들은 물론 떡, 음료작업반원들도 승벽심을 가지고 체육인들속에서 사랑받는 건강음료들과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식료품의 가지수를 날마다, 시간마다 늘여가고있다.

오늘 이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인민이 평가하고 인민이 좋아하는 건강음료들과 갖가지 영양식료품생산에서 계속 눈부신 혁신을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충정의 맹세로 가슴불태우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공격전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다해 활짝 피워가고있다.
—서성구역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석탄전선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덕천갱목생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덕천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1월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이달에 들어와서도 동발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전투목표를 단계별로 명백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재수, 김광남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소별, 소대별, 기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고 산판에 올라 벌목공들과 함께 일도 하고 휴식참에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온 산판이 동발나무생산전투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유승작업소의 벌목공들이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일자리를 폭폭 내고있다. 소장 리선일동무를 비롯한 벌목공들은 림지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매일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동발나무를 생산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생산된 동발나무들을 실어나르는데 력량을 집중하여 매일 수십㎥를 운반하고있다.

마감나르기거리가 제일 먼 양산작업소에서는 통쏘이와 소발구를 리용하는 방법으로 동발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박철문동무를 비롯한 작업소일군들과 벌목공들은 쇠바줄, 다이야, 부속품 등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사이나르기를 다그쳐 매일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1.3배로 수행하고있다.

장안작업소에서는 1.4분기에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의 많은 몫을 해제낄 계획밑에 산판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이곳 작업소에서는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1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동발나무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사업소의 공무작업반 로동자들은 이동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산판마다에서 뜨락또르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광 명 성 절 경 축

중 앙 사 진 전 람 회 개 막

광명성절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가 개막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백두산대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혁명무력건설사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다박솔초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두령장의 위인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이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에 어리여있다.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인민군대를 최정예화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하고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우리 군대를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한 넋과 숨결로 간직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고있다.

인민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감명깊게 전하는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끝없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인민군장병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여있다.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이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은 개막연설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모신것은 **김일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기약해준 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전도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사변이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 선 인 민 군 협 주 단

음 악 무 용 종 합 공 연 진 행

뜻깊은 2월 8일을 경축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9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무력부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원함》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과 합창 《조선인민군가》,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남성대중창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합창 《위대한 선군령장 만만세》, 혼성6중창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소해금과 가야금병창 《철령아래 사과바다》, 노래와 무용 《근위부대자랑가》,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세기를 이어 백승의 전통과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순결하게 계승해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빛나는 력사를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종목들은 위대한 건군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더욱 분출시켰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주체적인 군건설사상, 정력적인 령도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출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4월 25일과 함께 2월 8일을 백두산총대의 영원한 승리의 명절로 노래하는 한없는 긍지가 어려있었다.

관람자들은 한평생 선군길에 계시면서 우리 혁명무력을 최정예화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불세출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고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휘날려가는 혁명군대의 앞길에는 언제나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으로 가슴 불태웠다.

백두산장군들의 슬하에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자라난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기상과 량만을 반영한 노래련곡 《병사의 군공메달》,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초병들은 나를 보고 꾀꼴새래요》, 《훈련 또 훈련》 등은 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영광의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수령의 노래, 백두의 군가포성을 힘있게 울려온 혁명군대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천출위인들의 선군혁명령도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적신념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맹세를 구가한 공연은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로 끝났다.

백승의 건군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승전가로 뜻깊게 경축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체육열기와 더불어 넘쳐나는 혁명적랑만과 신심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니 얼마나 좋은가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속에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지난 1월 21일부터 평양체육관과 청춘거리 체육촌의 경기관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이 앞장에 서야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누구나 다 운동을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울수 있습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사업을 힘있게 벌려온 중앙기관 일군들은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집단의 사랑받는 롱구선수로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대중체육사업에서도 앞장서고있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드높은 열의가 이번 경기대회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여러 부류로 나뉘여 진행된 남자롱구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많은 단위들중에서 림업성과 국가건설감독성 선수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림업성 국장 리명국동무는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직접 감독이 되여 훈련을 지도하였으며 선수로 경기에도 참가하여 결승단계에까지 팀을 이끌었다. 그는 이번에 아쉽게도 1등을 못했지만 어제날 롱구에서는 소학교 1학년생이나 다름없었던 자기 단위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집단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발전하여 결승단계의 경기에까지 참가하게 된것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라고 하였다.

림업성의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기있게 벌린다면 다음번에는 얼마든지 우승할수 있다는 확신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국장 홍명표동무와 안영남, 리혁권동무를 비롯한 국가건설감독성 일군들과 정무원들 역시 처음에는 롱구수준이 대단히 낮았지만 대중체육사업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어 이악하게 훈련함으로써 이번에 해당 부류 롱구경기에서 당당히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이렇듯 당의 대중체육방침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 어느 중앙기관이라 할것없이 집단의 사랑받는 선수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으니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화폭들이 펼쳐질것인가.

젊음을 되찾아주는 명약

지난해에 있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탁구경기때에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체신성 책임부원 로금실동무는 자기는 지난시기 탁구를 할줄 몰랐지만 당정책을 받들고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이제는 선수로까지 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볼 결심을 피력하였었다.

그런 그가 이번 경기대회의 녀자배구경기는 물론 바줄당기기경기에도 선수로 참가한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일군들부터가 체육사업에 앞장설데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해 애썼을뿐이라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50대의 나이에 녀자배구경기에 참가한 조선혁명박물관 부장 최춘희동무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부를 때에도 마음이 한결 젊어지지만 체육활동에 몸을 푹 잠그니 청춘의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체육은 정말 젊음을 되찾아주는 명약이라고 하였다.

전 투 력 있는 응 원 단

《야-!》, 《우리 선수 이겨라!》…

이번 경기대회에서 특별히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금강지도국의 응원단이였다. 응원단의 맹활약으로 금강지도국 선수들은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인 차동수, 최영철동무들은 경기들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기술이 안받침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응원조직을 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종목별훈련과 함께 응원준비사업을 짜고들었다.

응원단을 조직하고 다양한 응원기재들을 일식으로 갖추도록 하는 과정에 체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능숙하게 경기를 지휘한 지도국일군인 박수일동무도, 남자롱구경기와 녀자배구경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은 물론 일군인 김철성동무도 오늘의 경기성과는 응원단의 열광적인 응원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 *

누구를 만나보아도 한결같은 목소리뿐이였다. 우리 당의 대중체육정책이 제일이라고, 체육열풍으로 들끓는 시대의 숨결에 발맞추어 몸도 마음도 튼튼히 단련하여 선군시대 대고조진군의 기수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겠다고.

당이 펼쳐준 대중체육의 활무대에서 힘차게 달리며 드세찬 체육열풍을 일으키고있는 중앙기관 일군들의 혁명적랑만과 신심에 넘친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글 및 사진 지 혁 철

인상깊은 산골군의 겨울철체육활동

랑 림 군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경기를 널리 조직하는것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사람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며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랑림군에서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마다 학생들의 겨울철체육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랑림군 읍에서는 겨울방학을 리용하여 군내학교학생들의 스케트, 거리스키경기가 진행되였다. 취재길에 우리는 군당책임일군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게 되였다.

군소재지를 가로질러흐르는 삼포강에 꾸려진 빙상장과 스키장은 수많은 학생들로 붐비고있었다. 스케트경기가 시작되자 자기 학교선수들을 응원하는 환성과 박수소리가 터져올라 읍내를 들었다놓았다. 랑림군 류벌고급중학교를 비롯한 군안의 학교선수들은 승벽내기로 주로를 힘차게 달렸다. 지치기자세도 좋았지만 낮은 자세로 속도있게 나가는 랑림군 류벌고급중학교 오례남선수의 경기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경기를 흐뭇하게 관람하던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군에서 학생들의 스키, 스케트타기를 장려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경기수준이 해마다 몰라보게 높아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학생들 누구나가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키워간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두메산골에 꾸려진 빙상장은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체육열의는 불같았다.

스키장의 분위기도 참으로 이채로왔다. 특히 거리스키경기에서 마지막결승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랑림군 서중고급중학교의 김유성선수의 모습은 체육인을 방불케 하였다.

스케트, 스키타기에 여념이 없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도 대견스러웠다.

온 나라에 몰아치는 체육열풍이 산골군에도 이렇듯 겨울철체육열기를 몰아오고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군당책임일군까지 학생들의 체육경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가. 랑림군 체육사업의 더욱 밝은 래일을 그려볼수 있게 하는 인상깊은 체육경기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월사업총화와 소대별체육경기

청룡차량대 명당렬차검사중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켜 인민들을 건장한 체력과 강의한 의지, 용감성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대중체육사업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될 때 그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날수 있다.

청룡차량대 명당렬차검사중대의 월사업총화에서 소대별체육경기결과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있는것만 보아도 그렇다. 중대에서는 당면한 월사업계획과 함께 소대별체육경기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고있으며 총화와 평가사업도 정확히 따라세우고있는데 그 경험이 매우 시사적이다.

이런 실례가 있다.

언제인가 긴장한 화차수리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수리기일을 보장하는것은 중대로서는 힘에 부치는 아름찬 과제였다.

이때 중대장 박영수동무는 문제해결의 방도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서 찾고 당조직의 지도밑에 그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소대별체육경기를 조직하고 경기결과를 월사업총화의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킨것이였다. 중대에서는 선수본위로가 아니라 중대원들모두가 참가할수 있게 소대별체육경기조직요강을 빈틈없이 세우고 강하게 내밀었다.

어려운 과제수행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서 진행된 소대별체육경기의 실효는 매우 컸다.

중대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체육기술을 익히느라고 애썼다. 긴장한 작업을 벌리는 속에서도 소대별로 실정에 맞게 배구, 탁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에 대한 훈련들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일에서도 체육경기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자. 이런 열의로 소대마다 부글부글 끓었다. 높아진 대중의 체육열기속에 더욱 박력있게 벌어진 소대별체육경기는 온 집단에 높은 집단주의정신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중대가 맡은 화차수리기일을 훨씬 앞당기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다.

중대장 박영수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체육사업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갈 때 집단의 단합이 보다 강해지고 대중의 정신력은 더욱 분출되며 그와 더불어 생산적앙양의 불길도 끊임없이 타오른다는것이 우리가 얻은 경험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 철 호

◎ 청춘의 기백, 꽃피는 우리 생활 ◎

이 채 로 운 일 요 일 풍 경

평천구역공원유원지관리소 봉남공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평천구역공원유원지관리소 봉남공원에서의 체육열기는 일요일과 더불어 더욱 고조되군 한다. 드높은 체육열기속에 한겨울에도 들끓는 일요일풍경의 일단을 아래에 전한다.

승벽심과 함께 높아지는것은

평천구역종합식당의 종업원들은 매월 한번씩 어김없이 체육경기를 이 공원에서 진행한다. 나날이 높아가는 체육열기속에 이 단위는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도 지닐수 있었다.

우뢰팀과 번개팀으로 갈라 진행하는 체육경기에서는 공빼몰며달리기, 공안고달리기, 외나무다리건느기, 바줄당기기,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는데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승벽이 보통이 아니다.

공안고달리기에 나와 공 5개를 안고 남먼저 달린 어느 한 종업원은 이렇게 말했다.

《체육경기에 참가할 때마다 하나로 뭉쳐야 이길수 있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무조건 이기겠다는 승벽심도 집단주의위력이 발휘될 때 은을 낸다고 봅니다.》

옳은 말이였다. 승벽심과 함께 높아지는것은 이들의 집단주의정신이다.

아들팀과 딸팀사이의 가족배구경기

이곳 체육장의 김정순동무의 말에 의하면 일요일에 여기서 자주 가족배구경기가 벌어진다고 한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잠시후 평천구역에 사는 한정옥녀성의 아들팀과 딸팀이 진행하는 가족배구경기가 시작되였다.

아들팀의 주장인 리영남동무는 내각사무국 아래단위 로동자, 딸팀의 주장인 김철학동무는 중앙체육학원 학생이였는데 각 팀은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부부와 자식들로 구성되여있었다. 아들팀에서는 리영남, 리광남형제가 손발을 맞춰 침착하게 경기를 하였고 딸팀에서는 비록 나이는 어려도 주장인 김철학동무의 조직에 따라 세명의 사위들이 부단히 위치를 바꾸면서 경기를 주동적으로 운영해나갔다. 경기는 아들팀의 승리로 끝났다. 승벽심이 센 딸팀의 선수들은 평균나이가 젊은 자기네가 풍부한 경기경험을 가진 아들팀을 다음번경기에서는 꼭 이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소리에 구경하던 사람들속에서 폭소가 터졌다.

어느 대학이 더 실력이 센가

봉남공원의 롱구장은 일요일이면 그 주변에서 사는 대학생들의 활무대로 변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각 대학의 대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여 롱구경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차례로 자기의 기술 즉 득점표기, 공련락기술, 몸빼기기술을 선보인다.

그중 뛰여나다고 인정되는 대학생이 자연히 주장으로 선출되고 곧 경기가 진행된다. 먼거리던져넣기, 륜밀던져넣기 등이 성공될 때마다 응원자들도 환성을 올린다.

얼굴을 처음 익힌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섞여 경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승벽심은 보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학의 대학생들이 실력이 더 센가 하는것이 롱구장에서의 경기승패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기때문이다.

평범한 일요일에 공원에 펼쳐지는 풍경이지만 당의 은정속에 날로 높아지는 체육열기와 더불어 더욱 꽃피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날과 달을 충분히 안아볼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생활의 단면이였다.

본사기자 백 성 근

배구경기가 남긴 여운

대동강구역 동문2동에서

올해의 첫 체육의 날이였다.

대동강구역 동문2동의 주민들은 이채로운 광경앞에서 저도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동안의 인민반장들이 참가하는 배구경기가 벌어지고있었던것이다. 이 류다른 경기에 대한 소문이 순간에 퍼진 가운데 수많은 주민들이 너도나도 모여와 자기 인민반장이 속한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였다.

동에서 첫 체육의 날에 인민반장들의 배구경기를 조직한데는 목적이 있었다.

지난 시기 동문2동에서는 여러가지 체육시설들을 갖추어놓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동안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은 동의 일군들은 그 방도의 하나를 인민반장들의 체육열의를 높이는데서 찾았다. 그래야 인민반장들이 앞장에 서서 인민반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킬수 있고 그만큼 동의 체육사업이 더욱 활기있게 벌어질수 있기때문이였다. 하여 올해에 들어와 동적인 첫 체육경기로 인민반장들의 배구경기를 조직한것이였다.

그런데 경기가 남긴 여운은 예상외로 컸다. 이날 경기를 통하여 인민반장들뿐아니라 동주민들의 체육열의도 더욱 높아진것이였다. 경기가 끝난 후 많은 주민들이 동일군들을 찾아와 앞으로 진행하는 체육경기의 조직요강에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을 더 포함시키자고 제기하는가 하면 동에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배구장꾸리기를 빠른 시일에 끝내자고 하면서 적극 떨쳐나서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앙양된 열의에 고무된 이곳 일군들은 인민반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면서 올해에 동전체가 말그대로 대중체육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신심있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대결광들의 《대화》타령은 말장난이다

2015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결코 례사롭게 시작된 해가 아니다. 이해의 첫아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데 대한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가 울려퍼졌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대담하고 통이 큰 결단과 성실한 노력은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북남대화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있으며 정세는 오히려 험악한 파국에로 치닫고있다. 과연 무엇때문인가. 바로 말로만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외우고 실지로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남조선괴뢰당국의 불순한 립장과 태도때문이다.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의지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고 한달이 넘도록 남조선당국의 달라진 모습과 대화의지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보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대화를 대결에 악용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해 그 무슨 《전제조건》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고있는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들의 립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과의 련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합동군사연습은 계속할것이며 보수단체의 삐라살포는 《표현의 자유령역》이므로 강제로 막을수 없다는것이다. 며칠전에는 북이 관계개선의지가 있다면 《소모적주장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비린청을 돋구며 마치도 우리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였다. 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처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전제조건》이니 뭐니 하고 시비하며 대화부터 열어야 한다고 우기는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수작이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자면 그 분위기부터 마련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지 않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중지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데 대한 우리의 중대제안은 조선반도의 현실과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방안이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으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의 제안은 그 무슨 대화의 《전제조건》이나 《소모적주장》인것이 아니라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남조선에서 북침을 가상한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며 동족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체제대결을 끝장내야만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패당은 우리의 제안이 북남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걸고들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3월초부터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미 괴뢰호전광들은 년초부터 《북핵 및 미싸일제거》와 《특별민사작전》을 벌릴 남조선미국련합사단 참모부를 가동시키였으며 미제침략군 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머스틴》호와 핵추진잠수함 《올림피아》호를 끌어들여 도발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려놓았다.

대화상대방을 이렇듯 심히 위협하며 전쟁광기를 부리면서도 제편에서 우리를 향해 《대화복귀》를 운운하고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가.

《대화》를 부르짖는 괴뢰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리유에 대해 《군사대비태세유지》니, 《통일을 위한 핵심요소》니 하고 광고하였다. 이것을 놓고서는 그 누구도 대화를 하겠다는 성근한 자세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서로 싸우지 말고 긴장을 완화하며 화해와 단합, 단결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것이다. 대결과 전쟁을 위해서라면 구태여 마주앉을 필요도 없는것이다.

긴장완화를 반대하는것은 곧 대화를 반대하는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의 처사는 긴장완화로 북남사이에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것을 바라지 않고 관계개선의지도 없다는 로골적인 의사표시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한사코 왼새끼를 꼬는 남조선당국의 립장과 태도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그런 반민족적망동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데서 자기 리익을 실현하려는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이다.

인간쓰레기들이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온 겨레가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며 북남관계의 파국을 조장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한목소리로 단죄규탄하고있는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그야말로 경악과 분노를 자아낸다.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는 적대행위를 그만둘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을 최전연일대에 내몰아 반공화국삐라살포란동을 벌리게 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우리는 반공화국삐라살포가 빚어낼 파국적후과에 대해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괴뢰당국은 그 무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삐라살포를 중단시킬수 없다고 우기고있다. 지어 미국의 모략군들이 《인권재단》의 간판을 들고 남조선에 기여들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한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보장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극구 비호하였다.

앞에서는 《대화재개의 여건을 마련》한다고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비롯한 체제대결망동에 미쳐돌아가는 괴뢰들에게 대화와 관계개선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에서 《앞에서는 대화제안, 뒤에서는 대북자극행위, 어느것이 당국의 본모습인가.》, 《현실적인 조치가 없는 대화제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실지로 바라는것은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체제대결을 격화시켜 《제도통일》의 흉악한 야망을 실현하는것이다. 괴뢰통일부 장관이 저들주도의 《통일》을 공공연히 떠벌이고 반역무리들속에서 《2015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는 폭언들이 거리낌없이 쏟아져나오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괴뢰들이 북남관계의 획기적전환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전제조건》이라고 시비하고 《소모적주장》이라고 걸고드는것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요구를 한사코 회피하고 정세파국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지난 한달 남짓한 기간의 사실들은 괴뢰당국자들의 《대화》타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모해압살하려는 저들의 흉악한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출발점은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의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는것이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것이 시작되여야 한다. 이것을 한사코 부정한다면 대화는 시간랑비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무작정 적대시하며 대결하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 만일 괴뢰당국자들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시대와 온 겨레의 요구에 계속 역행해나선다면 력사와 민족이 결단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최 철 순

우리 민족끼리는 조선통일의 기치

국제사회계가 주장

국제사회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조선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나이제리아의 정당, 단체들은 김정은각하께서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조선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뜻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조선통일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외세의 간섭과 동족사이의 대결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의지는 북과 남, 해외의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이란 《로동자의 집》은 성명에서 조선통일문제를 대화를 통해 그리고 조선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는것만이 유일한 방도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70년간에 걸치는 조선민족의 분렬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그 어느때 가서도 조선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실현할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오직 그 주인인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

여기에 외세가 끼여들 하등의 리유도 명분도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리라는것이다.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외세에 의해 분렬된 조선반도의 현실로 보나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조선통일문제의 본질로 보나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것이 아닐수 없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평화수호의지가 비껴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장구한 세월 지속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압살책동에 남조선당국이 적극 추종함으로써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은 고사하고 항시적인 군사적대결과 긴장만이 떠돌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곧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필연코 인류가 여직 체험해보지 못한 열핵전쟁으로 될것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에로 번져질것이며 그로 인한 인류의 손실과 재난은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인디아신문 《파블리크 뉴스》는 우리 민족끼리는 조선통일의 기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반영되여있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후 조선반도에 펼쳐졌던 경이적인 현실은 전민족이 단합할 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된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하고 실천하는 길에 조선민족의 통일과 번영이 있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도 있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조선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명시하신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친미굴종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의 파멸은 필연적이다

식민지노복의 쓸개빠진 넉두리

얼마전 영국의 한 생화학자에 의하여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세균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증되였다. 공개된 자료에는 미제침략군이 구일본군으로부터 획득한 세균무기개발과 사용방법을 조선전쟁에 적용한 사실과 그에 대한 미제침략군 포로의 진술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다. 그에 앞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화학무기를 오끼나와에 저장하고있은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 인민을 살륙하고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세균전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한 미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이 또다시 확증된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증오심과 반미기운은 하늘을 찌르고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괴뢰들만은 사태의 본질을 외곡하면서 동이 닿지 않는 쓸개빠진 넉두리를 줴쳐대고있다. 괴뢰들은 우리가 조선전쟁때 미국이 세균무기를 사용했고 오끼나와에 화학무기를 배치하고있다는 《황당한 내용》을 선전하고있다느니, 《체제결속》을 위해 《세뇌교육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있다느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았다. 검은것을 희다고 우겨도 분수가 있다. 도대체 무엇이 황당하단 말인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려고 세균무기까지 사용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얼마 안되여 파멸의 문턱에 다달은 미제는 전쟁형세를 돌려세우기 위해 1950년 가을 세균전계획을 작성, 실행할데 대한 미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하달하고 38° 선일대와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악명높은 세균탄들을 대대적으로 투하하였다. 하기에 우리의 신성한 조국강토를 더러운 세균전마당으로 전락시킨 미제의 살인장군들에게 세인은 《페스트장군》, 《콜레라장군》이라는 치욕의 오명을 붙여주었다. 미제의 세균전만행이 미합동참모본부와 미극동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감행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조선민족멸살행위라는데 대해서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조사단들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낱낱이 립증되였다. 미국이 조선침략전쟁에 대비하여 오끼나와에 화학무기들을 저장하였다는 자료도 최근 일본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하여 폭로된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괴뢰들이 과연 이 엄연한 사실을 몰라서 미제의 세균전만행을 두둔하는가.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어야 한다. 괴뢰들이 세치 혀바닥을 골백번 날름거리며 흑백을 전도한다고 해서 상전의 반인륜적죄악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것 같은가.

지금껏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세균전죄악에 대해 한사코 부정해온 미국상전도 이제 와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여 말 한마디 못하는 판에 한낱 그 머슴군에 불과한 괴뢰들이 우긴다고 력사적사실이 뒤바뀔줄 아는가. 그랬댔자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노복으로서의 저들의 가련한 몰골이나 세상에 깨깨 드러낼뿐이다.

괴뢰들이 《체제결속》이니 뭐니 하는 악담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고 상전의 피고름을 핥아주며 비굴하게 놀아대는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여 상전의 환심을 사보자는것이다.

지금 미제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보복열기는 친미사대에 환장한 남조선괴뢰들을 극도의 불안속에 몰아넣고있다. 우리의 분노와 적개심에 기겁한 괴뢰패당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세균전만행을 비롯하여 각 방면에서 미국을 편들면서 우리를 더욱 걸고드는것으로 상전의 환심을 사고 동족압살의 더러운 흉계를 한사코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온갖 악정과 부정부패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져들고있는 남조선당국으로서는 《정권》안보를 위해 상전의 지지와 환심을 얻는것이 급선무이다. 바로 그래서 진실을 외곡하면서까지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는것이다.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력사적으로 공인된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미제의 세균전만행까지 부정하며 동족을 걸고드는 괴뢰들의 망동은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제도와 존엄을 말살하려고 무모하게 헤덤비는 날강도 미제의 숨통에 멸적의 총구를 겨누고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대양건너 미국본토에 미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종국적멸망의 불벼락이 무자비하게 쏟아질것이다.

괴뢰들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미국의 충견이 되여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미쳐날뛴다면 수치스러운 파멸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은 정 철

매국노들을 단호히 징벌할 멸적의 함성

상전의 죄악과 무엇이 다른가

이 세상에 괴뢰들처럼 민족적존엄도 자존심도 없이 외세의 발바닥이나 핥으며 잔명을 부지해가는 쓸개빠진 역적무리는 없다.

미국이 한짓이라면 무작정 편들고 박수를 보내며 민족을 반역하던 괴뢰들이 이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감행된 미제의 세균전만행까지 부정하며 상전을 극구 비호두둔해나서는 판이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기 위해 세균무기를 사용한것은 력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이 《황당한 내용》이니 뭐니 하고 나발질하고있으니 이게 제정신있는 놈들인가. 정말 피가 꺼꾸로 솟을 일이다.

그래 괴뢰들은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두렵지 않은가. 전쟁시기 세균탄투하에 직접 참가했던 범죄자들의 자백과 미국의 국립문서고에 보관된 조선전쟁에서의 세균전만행과 관련한 문서들을 어떻게 부정할수 있는가.

괴뢰들이야말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완전히 리성을 잃었다.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 미제의 천인공노할 세균전만행은 어떻게 하나 가리워주고 미국의 반인륜적죄악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동족은 미친듯이 헐뜯는 역적패당을 놓고 어떻게 조선사람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놈들의 추태는 조선에서 세균전을 직접 감행하여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한 미국의 만행에 조금도 짝지지 않는다.

그러고보면 세균전을 감행한 놈이나 그것을 감싸주는 놈이나 다 같고같은 특급전범자로 취급해야 마땅하다.

괴뢰패당은 우리가 벌리게 될 최후의 반미결사전이 결코 미제만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의 본거지도 모조리 소탕해버리는 무자비한 복수전으로 될것이다.

괴뢰들이 어리석게도 미국의 겨드랑이밑에 기여들어가면 목숨을 부지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정말 가련한 놈들이다. 목숨을 부지하고싶으면 입부리를 함부로 놀려대지 말라. 세치 혀바닥때문에 온 남조선땅이 화를 입을수 있다.

황해남도수산관리국 당위원회 비서 주해성

최후성전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남조선괴뢰패당이 력사적사실까지 외곡하며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저지른 세균전만행을 감싸보려고 헤덤비고있는것은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심을 자아내고있다.

괴뢰들이 우리가 그 무슨 《세뇌교육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있다고 떠벌이며 미제를 비호두둔하고있다는데 그야말로 미국의 더러운 주구로서의 저들의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수많은 세균탄을 떨구어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사실은 이미 낱낱이 폭로된것이 아닌가.

전쟁의 포성은 이미 오래전에 멎고 강산도 변하였지만 오늘도 미제의 세균전만행을 고발하는 증거물들은 계속 나타나고있다.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만도 수십년이나 땅속에 파묻혀있던 미제의 세균탄들이 발견되였다. 이천군 무릉리에서는 세균탄을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보안원이 세균에 감염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미제의 세균전만행은 지난 조선전쟁시기뿐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있는것이다.

그 흉물스러운 미제의 세균탄을 비롯한 각종 폭발물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는 철천지원쑤 미제의 죄악을 총결산하고야말 결의를 굳게 다지군 한다.

그런데도 괴뢰들은 세균전만행의 피해자인 자기 민족을 욕되게 하면서 미제를 한사코 비호하고있다. 이런 매국역적들을 과연 어떻게 살려둘수 있겠는가.

남조선에 민족을 반역하는 추악한 역적배들이 계속 살판치는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결코 이룩할수 없다. 괴뢰들은 저들의 그따위 매국적망발이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복수심만을 더욱 치솟게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최후성전의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백악관과 펜타곤만이 아닌 청와대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자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한 결심이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인민보안부려단 참모장 봉원

민족의 망신이고 수치이다

괴뢰들이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감싸주지 못해 지랄발광하는것을 보고 정말 격분을 금할수 없다. 아무리 친미사대에 환장이 되였다 한들 어떻게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까지 부정하며 상전을 편들수 있는가.

지난 전쟁시기 미제살인귀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 각종 세균탄을 대량투하하였다.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공화국북반부를 재더미로 만든 미제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나중에는 세균에 감염시킨 파리, 모기, 벼룩, 빈대, 쥐, 개구리 등을 리용하여 세균전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여러 지역에서 페스트, 콜레라, 장티브스를 비롯한 무서운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결국 수많은 우리 인민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조사단도 인정하고 극악한 살인마 미제를 규탄단죄하였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은 미국이 세균탄을 투하한적이 없다고 력사를 뻔뻔스럽게 외곡하며 나중에는 우리까지 악랄하게 헐뜯고있다.

궁지에 몰린 상전을 비호하기 위해 검은것도 희다고 우기며 혀바닥을 날름거리는 역적무리들의 추태는 정말 역겹기 그지없다.

미국상전에게는 삽살개처럼 꼬리를 저으면서도 동족에게는 미친개처럼 달려드는 이런 쓸개빠진자들이 우리 민족내부에 있다는것자체가 망신이고 수치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따라서 마주앉을 필요조차 없다.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며 갈수록 못되게 놀아대는 역적패당을 백두산총대로 무자비하게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 이것은 나 한사람만이 아닌 우리 병원 전체 의사, 간호원들의 심정이다.

류경구강병원 과장 김금실

또다시 낱낱이 드러난 미제의 비렬한 세균전만행의 진상

미국이 지난 전쟁시기 조선에서 세균전을 감행하기 위해 일본과 밀접히 결탁해온 력사적죄악이 폭로되였다.

영국의 생화학자가 작성한 세균전보고서원문이 미국의 한 심리학자에 의해 공개되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세균무기의 개발과 사용방법을 배워 조선전쟁에 써먹은 사실을 고발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세균전부대로 악명높았던 일제의 731부대장이 1952년초 남조선에 여러차례나 기여들었다.

전쟁시기 조선인민군에 포로된 미군이 세균전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기록되여있다.

미국이 저들의 세균전만행을 부정하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일본전범자들까지 동원하여 세균무기와 같은 대량살륙무기의 사용을 서슴지 않은 죄행은 결코 가리울수도 부정할수도 없다. 일제가 패망하자 미국은 세균전을 전문으로 연구해오던 일본군 731부대의 연구자료들을 걷어쥐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47년에 인간생체실험결과를 독점하는 대가로 세균전개발계획에 참가하였던 이 부대의 전범자들을 도꾜전범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더러운 비밀협약을 맺었다.

맥아더의 지시에 의해 731부대장을 비롯한 이 부대 전범자들이 사면되여 미군의 세균무기연구에 인입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미합동참모본부는 적어도 1949년까지 세균전을 비상작전계획으로 수립해놓았다.

조선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작전도중 세균전에 사용될 특정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현장실험을 지시하였다.

1950년 10월 27일 당시 미국방장관이였던 죠지 마샬이 세균무기개발계획을 세웠으며 후임인 로버트가 1951년 12월 세균무기를 실전에 투입할 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명령을 내리고 미공군참모부는 세균무기개발에 착수하였다. 미공군의 요청을 받은 연구진과 군수기업체는 콜레라, 적리, 티브스와 같은 전염병과 농작물오염을 확대하는 세균을 개발하였다. 세균을 옮기는 곤충과 이 곤충을 산포하는 방법, 심리전의 목적으로 뿌리는 삐라에 유독성포자를 묻혀 일종의 《분사포탄》으로 리용하는 계획들도 연구하였다. 세균무기개발과정에 731부대 군의중장이였던 기다노 세이지로부터 류행성출혈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넘겨받기도 하였다.

세균전준비가 갖추어지는데 맞게 미국은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 세균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뿌려댔다.

미합동참모본부의 지령에 따라 미5공군사령부가 1952년초 산하부대들에 세균전을 벌릴것을 명령하였다. 그해 1월초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미국은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0여차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여기에 투입된 비행기가 공화국북반부지역 폭격에 동원되였던 전체 미군비행기의 4분의 1에 달하였다 한다.

1952년 한해동안에만도 세균전계획에 5억US$가 지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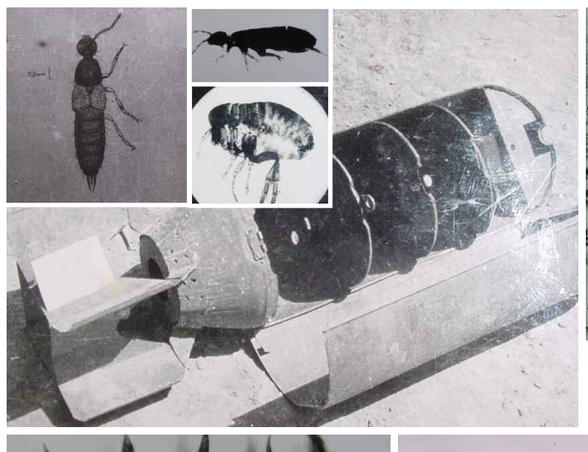
미국이 이 범죄적만행을 위해 731부대장이였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악한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발악해온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그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전문가들이 《일본 731부대출신들이 미국의 세균전을 도와주기 위해 동원되였다.》, 《미국이 부인하고있지만 조선전쟁에서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증언한바 있다.

미국이 저들의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별의별 술책을 다 꾸며도 그것은 굴러가는 눈덩이가 커지는것처럼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것으로 될뿐이다.

【조선중앙통신】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된 미제의 세균전, 화학전만행



↑ 미제야수들의 독가스탄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자식들을 목놓아부르는 어머니들

← 미제가 투하한 세균탄

미제가 투하한 각종 세균매개물들

날강도 미제는 우리 식의 강력하고 령활한 정의의 타격앞에 최종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천만군민의 분노의 목소리

승냥이를 없애자면 그 소굴을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

미국의 본성이 신통히도 승냥이와 꼭같다. 힘이 약한 나라들에 사정없이 달려들어 그 나라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것도 그렇고 힘이 센 나라들의 주변을 추종세력들과 함께 무리지어 맴돌며 먹을 물려고 노리는것도 그렇다. 모든 짓거리를 보면 포악하고 악착한 승냥이그대로이다.

지금 이 두발가진 승냥이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며 이발을 갈고있다니 터져오르는 분노를 억누를수 없다.

나뿐이 아니다. 우리 군인들모두가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사격훈련을 해도 우리에 대한 악다구니질을 일삼는 승냥이소굴의 괴수 오바마의 상통을 쫘갈기는 심정으로 하고 격술훈련을 해도 우리에 대한 고강도제재에 환장이 된 흉악한 오바마의 삐죽한 돌대가리를 단숨에 박살내는 마음으로 하고있다.

우리는 아직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국놈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수많은 인민들의 원한을 완전히 풀어주지 못하였다.

미국놈들이 신천에서 감행한 치떨리는 대학살만행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인두겁을 쓴 승냥이의 정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면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보여주고있다.

그때의 원한과 그 이후 쌓이고쌓인 모든 원한을 다 합쳐 복수할 때가 되였다. 승냥이들에 대해서는 그 무슨 인정사정이라는것을 봐줄것도 없고 자비를 베풀것도 없다. 모조리 죽탕쳐버려야 한다.

승냥이를 모조리 없애자면 그 소굴까지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

제 소굴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세계곳곳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는것이다. 그 소굴이 더이상 안전하지 못할뿐아니라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것을 미국놈들이 죽기 전에 똑똑히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일단 명령만 내린다면 우리 군인들은 항복서에 도장찍을 놈도 없게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최영근

천만군민은 준비되였다

오바마와 그 떨거지들이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추가제재》의 광기를 부리고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쳐오다가 70년간이나 남녘땅을 타고앉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 들씌운 미제가 이제는 로골적으로 공화국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악설을 퍼부어대니 그야말로 격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을 벌리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리는 미국놈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쟁위험이 제거될수 있겠는가.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아시아대륙에로 진출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라크나 리비아가 아니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승냥이는 제때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알아도 우습게 알고있는 이런 미친 승냥이무리들이 우리와의 대결을 선포한것은 우리가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다. 미증유의 초강경전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군민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날강도 미제와 결판을 내고야말것이다.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우리의 사상과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나갈것이다.

세계는 미제가 바로 제땅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멸망을 맞이하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남양탄광 7갱 갱장 리철준

미국에는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우리 문학대학안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미제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으로 펄펄 끓어번지고있다.

이번 성명에서 보여주다싶이 미제는 달리 될수 없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우리의 영원한 주적이다.

승냥이는 음흉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짐승이다. 바로 이런 짐승의 무리들이 저 오바마패당들이다.

미제는 이번에 저들의 승냥이본성을 명백히 드러내보였다. 왜서 선량한 우리 인민이 제놈들에게만은 그 기나긴 세월을 승냥이 미제라고 하는지 이번에 저들스스로가 세상에 똑바로 알려주었다.

한때 제놈들에게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고 지껄이길래 승냥이가 제법 사람소리를 내는것 같아 몹시도 희한했댔다. 아니나다를가 그것은 역겨운 추태에 불과한것이였다.

미제는 올해의 서막을 우리에 대한 《추가제재》를 하는것으로부터 열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가장 신성하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어댔다. 《독재국가》라느니 뭐니 하다 못해 《스스로의 붕괴설》까지 줴쳐대고있는 판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극악한 중상모독이며 적대적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차지 않고서는 이렇게 놀아댈수 없다.

미제는 분별을 잃을대로 잃었다. 미제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대해 무모한 적대시책동으로 나선 이상 우리도 더는 참지 못한다.

승냥이 미제에게는 인간의 언어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아메리카의 승냥이들에게는 오직 불마당질이 제격이다.

승냥이소굴을 본때있게 불사르는 그날 승전의 하늘가에는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기발이 휘날리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최영식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벼들라

이번에 오바마가 감히 우리 나라에 대해 험담했다니 속이 뒤집혀 참을수 없다.

오바마가 우리 공화국이 《붕괴》될것이라고 주절댔다는데 우리 종업원들은 하나같이 그놈을 끓는 물에 처넣자고 욱욱 벼르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가. 미국나부랭이들이 알기나 하고 그따위 헌수작질인가. 우리에게는 밝은 앞날이 있다. 우리는 래일을 락관하고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런데 오바마인지 오리발인지 어데다 대고 감히 삿대질인가. 무너져가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백인들이 죄없는 흑인들을 사정없이 쏴죽이고도 무죄로 선포되고 금융위기에 시달려 허우적대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우리 나라를 헐뜯는가. 우리 나라는 국조인 참매처럼 급상승하는 나라이다. 미국의 눈에는 우리 인민들이 당에서 마련해준 건축물들마다에서 행복을 누리는것이 보이지 않는가.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리며 일터마다에서 창조의 보람과 기쁨으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는 우리 인민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분별을 잃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는 미제에게 이제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가 왔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하듯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 우리 나라를 어째보려는 미제는 무자비하게 다스려야 한다.

입에서 무슨 험악한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입부리를 놀려대는 오바마에게 경고한다.

만일 미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우리에 대해 악의에 찬 비난을 계속하면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일삼는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땅을 불도가니로 만들어버릴것이다.

중앙열망사업소 과장 정명진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국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내겠다

무지한 미국놈들이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무슨 제도《붕괴》에 대하여 주절대고있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어리석은 너희들이 《붕괴》될것이라고 망상하는 사회주의 우리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이다. 우리 녀성들이 당의 크나큰 사랑과 관심속에 아무런 걱정없이 자식들을 낳아 키우고있는것만 보아도 그렇다.

미국땅에서는 녀성들이 1만~2만US$가 있어야 무난히 아이를 낳을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평양산원에는 녀성들과 애기들을 위해 갖가지 천연보약들과 온갖 의료보장, 생활조건들이 다 마련되여있다. 마음껏 고고성을 터치는 애기들을 보며 고마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의사들과 어머니들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는 우리의 운명이고 생명이며 참된 삶의 보금자리이다. 사회주의대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 인민에게는 미국놈들의 그 어떤 군사적공갈도 경제제재도 회유기만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녀성들의 운명이 가장 비참한 나라,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인 미국이 주제넘게도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겠다고 헤덤비고있으니 더는 참을수 없다. 우리 평양산원의 전체 종업원들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만을 덧쌓는 미국놈들과 총결산할 그날만을 기다리고있다. 일단 반미대결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도 용약 떨쳐나 미국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낼것이다.

평양산원 기술부원장 김인혁

재침열에 뜬 머리를 식혀야 한다

지난 1일 일본이 군사정찰위성을 쏴올렸다. 일본당국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한 군사정보를 얻기 위한것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남을 걸고들며 검은 배속을 채우는 섬나라의 악습은 올데갈데 없다.

오늘날 일본렬도에 배회하는 히스테리적인 《미싸일공포증》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의도적인 선전공세의 산물이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한사코 《미싸일발사》라고 고집한것도, 당장 미싸일소나기가 쏟아지는듯이 오도된 여론으로 자국민들을 들볶아대는것도 일본당국자들이기때문이다.

탄도미싸일기술로 백수십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올린 일본이 결코 무지하고 판별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억지공사를 벌려놓는것이 아니라는것은 자명하다.

일본이 허구적인 《위협》타령을 불어대는것은 야심적인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 합법화하자는 술책이다. 군사정찰위성발사놀음이 바로 그렇다. 그것은 우리 나라와 그 주변지역을 정밀감시하여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해외침략준비책동의 한 고리이다. 1980년대에 벌써 일본은 《리용이 일반화된 위성을 〈자위대〉가 리용하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밀리에 군사정찰위성도입을 추진해왔다. 랭전종식후 어벌이 커진 일본은 《독자적인 방위능력보유》를 운운하면서 군사정보수집위성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진입하였다. 1997년에는 국내최대규모의 정보본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위성정보를 분석, 처리하는 화상부를 내왔다. 쥐 소금 녹이듯 야금야금 군사정찰위성도입에 접근한 일본이지만 전범국, 전패국을 주시하는 내외의 예리한 눈초리와 여론을 무시할수는 없었다.

정보를 조작하고 여론을 오도하는데 이골이 난 일본은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그러한 고민거리를 털어버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현실적으로 그해 9월 일본은 《미싸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군사정찰위성도입을 결정하였다.

최근년간 우주개발전략본부까지 조작한 일본에서는 우주군사화책동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군사정보수집을 목적한 위성수는 공개된것만 해도 5개가 된다. 군국화에로 질주하는 일본당국은 여기에 성차하지 않고있다. 지난 1월 위성을 리용한 선박감시와 정보수집 등을 기본으로 하는 10년간의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이 정식 결정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주관련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현재의 약 1.6배 더 늘어나게 된다. 이번 발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된것이다. 하루빨리 군사정찰위성도입을 완비함으로써 해외침략에 필요한 모든 군사정탐자료들을 장악하고 그에 맞게 《자위대》의 무력편성과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은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궁극적목적이다. 이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공화국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도전이며 엄중한 위협이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일본의 군사적도발이 년초부터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편승하여 감행된다는데 있다. 전쟁에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정세를 악용하여 어부지리를 얻자는것은 력대로 미국상전의 겨드랑이밑에 붙어 제볼장을 보아온 일본의 약삭바른 타산이다. 일본이 미국, 남조선과 그 무슨 군사정보교환에 관한 3자합의서를 체결한것, 미국주도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으며 발벗고나서는것 등은 대미추종을 통해 생존해온 치졸하고 너절한 일본의 사고방식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첫번째 타격대상으로 정해놓고있다. 전쟁전야에나 볼수 있는 군사정탐책동이 여느때없이 로골적으로 확대강화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력침공이 눈앞의 현실로 박두해오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허나 일본은 망상하고있다. 일본이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강탈하고 지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던 일본반동들이 그때에는 살아돌아갈수 있었고 황금의 소낙비를 맞을수 있었다. 단언하건대 그런 요행은 다시는 없을것이다. 두번다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땅을 어지럽히는 침략자들, 기지를 제공해주고 전쟁물자를 보급하는 하수인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할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일본은 재침열에 뜬 머리를 식혀야 한다.

배금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날강도 미제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더 분별없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로 번져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을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인디아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1월 22일 조선을 악의에 차 헐뜯어댔으며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런 정권은 무너질것》이라고 줴쳐댄데 대하여 오바마는 제입을 통하여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기본목표가 조선을 《붕괴》시키는데 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까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조선식의 상용전쟁으로, 핵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조선식의 핵타격전으로, 싸이버전에 의한 《붕괴》를 시도한다면 조선식의 령활한 싸이버전으로 미국의 최종멸망을 앞당겨오자는것이 조선의 단호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조선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싸이버전 수단들이 적용될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날강도 미제가 조선을 《붕괴》시킨다고 떠들어대는 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것을 미합중국의 오바마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 신문 《스테이츠맨》, PTI통신과 인디아—아시아통신, 지 뉴스TV방송, NDTV방송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뛰르끼예신문 《뛰르끼예》는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날강도 미제의 대조선군사전략이 침략전쟁도발단계에로 치닫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대응은 미합중국에 가장 쓰디쓴 참변을 들씌우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것이다.》, 《미제는 미국본토 제땅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악몽의 그 시각이 다가온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나라 신문 《하베를레르.콤》, 웰남신문 《웰남뉴스》와 인터네트홈페지들, 캄보쟈신문 《꼭 쏜때피앱》, 인도네시아신문 《쟈까르따 포스트》, 체스꼬의 체떼까통신과 인터네트통신들, 벌가리아의 포쿠스통신과 신문 《블리즈》, 에짚트신문 《알아흐람》, 레바논신문들인 《알쥼후리아》, 《알 디야르》, 알제리 인터네트신문 《알 빌라드》, 미국의 UPI통신과 신문 《뉴욕타임스》도 《조선 미국과의 회담가능성 배제, 미국의 최종멸망을 앞당겨올것을 다짐》 등의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보도하였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가 최근 반항공무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3일 로씨야동부군관구 공보부는 《C-400》대공미싸일종합체가 깜챠뜨까에서 전투근무에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윌류친스크잠수함기지를 비롯한 태평양함대 대상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이 2일 핵 및 상용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국산제순항미싸일 《라아드》를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350㎞이고 스텔스능력을 갖춘 이 미싸일은 륙상과 해상에서 전략적원거리유도능력을 갖출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파키스탄군부는 저고도에서 비행할수 있는 이 미싸일은 명중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4.4분기에 5.01% 증가하였다. 5일 이 나라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올해 3월 20일에 끝나는 현 이란년도의 첫 10개월동안에 원유를 제외한 제품수출액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대되였다.

3일 이 나라의 파르스통신이 전하였다.

캄보쟈에서

캄보쟈에서 지난해 경제가 7.2% 장성하였다.

특히 농업, 관광, 건설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한다.

4일 이 나라 수상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브라질의 항

로씨야대통령 위기극복계획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3일 경제문제에 관한 협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위기극복계획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이 계획의 선차적인 문제들은 공업과 농업생산, 금융체계, 로동시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보다 중요한것은 경제의 질적장성을 보장하고 다각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불순한 기도를 단죄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4일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를 단죄하였다.

최근 미국방성 정보국장이 올해말 베네수엘라에서 있게 될 국회선거를 계기로 이 나라에서 폭력적인 반정부시위가 일어날것이라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랑비하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민족적단결은 반드시 승리를 안아올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외국무력의 철수를 요구

이란외무성 부상이 3일 한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지역으로부터의 외국무력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외국무력이 테로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까밝혔다.

지역나라들은 테로를 반대하여 싸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저들의 무력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촉구하였다.

군사통신위성발사 강행

미국이 우주군사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1월 20일 미공군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캐너버럴기지에서 MUOS군사통신위성을 탑재한 《애틀라스 5》호 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이 통신위성발사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과 살인만행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1월 30일 이스라엘당국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정착촌들에 450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팔레스티나인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같은날 유럽동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날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450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는것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국제법을 유린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월 31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시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19살 난 팔레스티나인청년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와 같은 만행은 현지주민들속에서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팔레스티나인살림집파괴행위

전승의 력사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

력사에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을 반대하는 전세계 민주주의력량의 해방전쟁이였다.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던 파시즘은 첫 사회주의국가 쏘련의 결정적인 역할에 의해 멸망하고 전세계 민주주의력량은 승리하였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쏘련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그런데 얼마전 우크라이나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력사를 외곡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로씨야의 격분을 자아냈다.

우크라이나수상 아르쎄니 야쩨뉴크는 한 회견에서 1941년에 쏘련이 도이췰란드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고 력사를 외곡하는 발언을 망탕 하였다.

로씨야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과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야쩨뉴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것은 나치스도이췰란드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이며 로씨야와 유럽을 해방하는 싸움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최근년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력사외곡기도가 빈번해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해 8월 유럽위원회대표가 로씨야가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고 망발하였다. 이보다 앞서 4월에 일본수상 아베가 그 무슨 제2차 세계대전의 A급전범자들을 추모하는 의식에 《애도문》을 보내 국제사회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아베는 그 전해에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자들을 《애국자》들로 묘사했다.

국제적으로 력사외곡시도가 빈번해지는 속에 나치스분자들을 내세우고 그 공범자들을 《영웅》화하려는 행위들도 우심해지고있다.

지난해 9월 7일 새벽 벌가리아의 수도 쏘피아중심부에서 쏘련군기념비를 모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끼예브를 비롯한 기타 도시들에서는 히틀러와 나치스범죄자들의 발언들이 망탕 나도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의 앞잡이였던 우크라이나민족주의단체두목 반데라의 상징물을 든 신나치스분자들의 시위망동이 벌어졌다. 유럽의 일부 지역들에서 극단주의적행동이 확대되고 인종주의, 민족배타주의를 선전하고 파시즘사상과 인종우월론을 전파시키는 정당들이 늘어나고있다. 반동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나치즘의 표식과 상징, 구호를 내들며 력사를 외곡하려고 날뛰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도 수정하고있다. 개별적인 정치가들은 그것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묵인조장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력사가 외곡되고 침략과 략탈, 파괴와 학살이 공공연히 찬미되고있으며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바쳐진 값비싼 희생이 모독되고있는것은 실로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로부터 로씨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지난 1월 오슈벵찜수용소해방 70돐에 즈음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력사를 외곡하려는 일부 나라들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파쑈분자들이 전체 쏘련인민을 식민지화하고 강압적으로 동화시켜 노예로 만들거나 멸살시키려고 획책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범죄가 되풀이되는것을 허용하지 말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메드베제브수상은 정치적목적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실을 외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있는데 이것은 비도덕적이며 위험한 행위라고 까밝혔다.

로씨야에서는 전쟁로병들의 위훈과 영웅주의, 희생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할 목적밑에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기념메달을 제정하였다. 또한 2015년 전승열병식을 영웅도시들과 로씨야의 기타 17개 도시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1월 로씨야에서는 련방평의회와 국가회의가 파시스트봉쇄로부터의 레닌그라드해방의 날(1월 27일)의 명칭을 확정하는 법을 채택승인하였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봉쇄를 이겨내고 도시를 지켜낸 레닌그라드시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 명칭을 확정하게 되였다.

이보다 앞서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 지도자들의 비공식회담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계기로 이전 쏘련인민들의 영웅주의를 소개선전하기 위한 행사들을 진행할것을 호소하였다.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는것이 력사이다.

위대한 조국전쟁의 력사와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김철룡

ㄱ-51022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